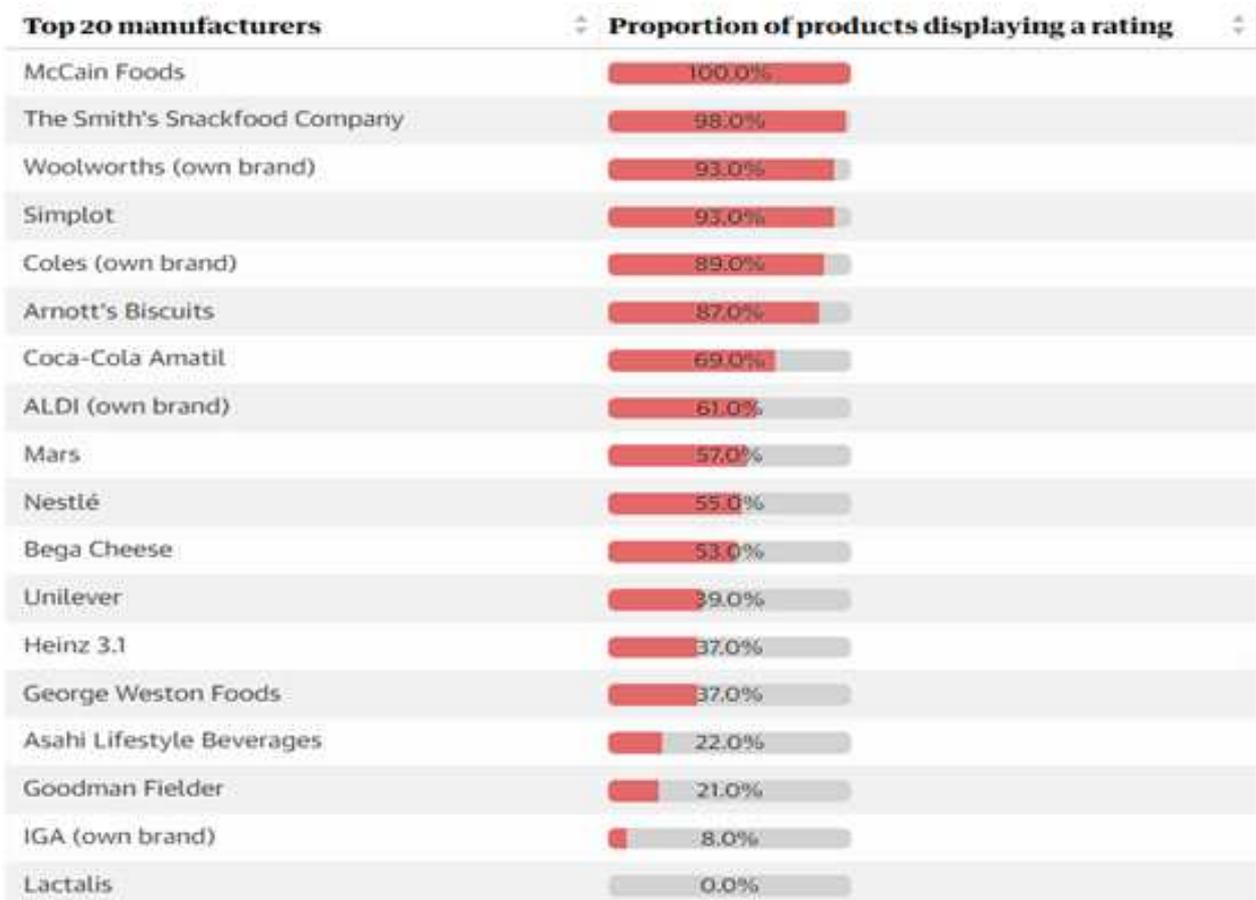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1. 슈퍼마켓에 진열된 제품 중 1/3만이 헬스스타인증(Health Star Rating) 표기



- 호주의 헬스스타인증(Health Star Rating) 시스템은 가공·포장 식품의 전반적인 영양학적 성분에 따라 최저 별 1/2개부터 최고 별 5개까지로 나타내는 포장 전면 라벨링 시스템임
- 2014년 도입되어 현재까지 소비자들에게 정보전달 목적과 유사한 제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음

-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 대학 산하 George Institute for Global Health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슈퍼마켓에 진열된 제품 중 헬스스타인증(Health Star Rating)이 약 1/3만이 표기되어 있음
- 헬스스타인증(Health Star Rating)을 표기한 제품의 비율은 2019년 40%에서 2023년 36%로 감소 되었음
- 헬스스타인증(Health Star Rating) 시스템은 식품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로 제조업체의 마케팅의 한 수단으로 이뤄지고 있어, 영양학적으로 유리한 제품에만 채택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임
- 호주 당국은 '23년 11월까지 헬스스타인증(Health Star Rating)을 표기한 제품의 비율을 50% 수준까지 증가시키고자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됨

* 출처 : The Guardian

2. 호주 소비자 공정거래 위원회, 친환경 관련 주장 가이드라인 발표

- 호주 공정거래위원회는 친환경 혹은 지속 가능한 원료 사용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제조, 판매업체가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음
-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실제보다 더 환경적으로 유익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거짓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환경 주장을 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을 금지하는 내용임
- 위원회는 그린워싱의 예로 "이 제품은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제품 제조업체를 들었음. 이 경우 병은 재활용 재료로 만들어

졌지만 뚜껑과 외부 포장, 그리고 내용물은 재활용되지 않는 경우 "해를 끼치지 않음"은 이점을 과장하고 비즈니스 제품의 영향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주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용이 금지됨

- 또한, 초콜릿 제품을 판매하면서 "코코아가 삼림 벌채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도매 공급업체가 코코아를 어디서 공급받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호주 소비자법을 위반하는 위험이 있음
- 기업은 이러한 주장을 하기 전에 코코아가 삼림 벌채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기 때문임
- 위원회는 '녹색', '환경친화적' 또는 '친환경', '지속 가능' 등의 문구가 제품이 다른 제품보다 환경에 덜 해롭다고 주장한다는 메시지 외에는 소비자에게 거의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면서, 생산, 사용, 배송 및 폐기 과정에서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소비자가 생각하도록 오도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음



<재활용 뫼비우스 루프>

-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재활용의 상징인 뫼비우스 루프의 경우도 소비자에게 제품이 재활용 재료로 만들어졌거나 재료가 재활용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이런 특성이 전체 제품과 포장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함

* 출처 : 호주소비자경쟁위원회

3. 가공식품 대비 신선 식품 가격상승 증가

- 브리즈번의 한 유통매장에 따르면 방울토마토 한 팩의 가격이 몇 달 사이에 3불대에서 6불대로 오름
- 옥수수나 가지, 오이, 애호박처럼 평소라면 고민하지 않았을 신선식품 구매를 고민하게 된다고 하며 지금과 같은 물가상승 현상은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언급함
-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캔 가공품 대비 신선 제품의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체감하고 있음
- 특정 과일이나 채소는 호주에 판매되기 까지 여러 나라를 거쳐 생산, 가공됨에도 불구하고 훨씬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음
- 지역 경제 연구소의 벤 레이온 이사에 따르면 물가상승에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지난 5년간 현지 농업인의 생산비용은 유가 상승과 산업 관련 법률 강화로 생산비용이 30~60퍼센트 가량 증가했으나, 해외 생산된 캔 제품은 대기업들을 통해 대량으로 저렴하게 생산되고 있기 때문임
- 캔 제품은 보존기한이 길기 때문에 부패 문제에서 자유롭고 쉽게 생산, 보관할 수 있으나 신선 과채류의 선도유지 기간은 캔 제품보다 훨씬 짧음
- 남퀸즐랜드 대학 교수연합에 따르면 호주 농부들의 생산비용이 급격하게 가중되고 있음
- 호주 대형유통매장 울월스에서 판매되는 신선 토마토가 캔 토마토 대비 2배가량 비싸며, 호주의 대형 유통매장은 매우 강력한 판매력을 가지고 있어, 생산자들이 가격 협상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 생산자가 대형 유통매장이 요구하는 도매가격을 맞추기 어려워지면서 호주 농업의 기반이 되는 퀸즐랜드의 농부들은 땅을 팔고 경작을 포기하는 추세임

- 레이온 박사는 이러한 가격상승 현상은 문제의 일부에 불과하며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함

* 출처 : abc.net.au

II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 해상 화물 컨테이너 생물 보안 통관 절차 변경

- 호주로 수입되어 지역에서 포장을 풀어야 하는 해상 화물 컨테이너에 대한 생물보안 통관 절차가 일부 변경 되었음
- 사전 승인을 받은 통관업자와 수입업자는 농수산부가 사전에 문서 평가를 통해 수입을 허가한 해상 컨테이너와, 통관 검사 이전에 의무적인 처리가 필요한 상품이 있는 해상 컨테이너를 검사할 수 있게 되었음
- 해상 및 항공 화물 창고를 운영하는 생물보안 참가업체는 농수산부의 지시에 따라 농촌 지역 보관 장소에서 포장을 풀어야 하는 특정 컨테이너에 대해 농촌 테일게이트(RTG)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음

* 출처 : 호주 농림수산부

III 통관문제사례 관련

□ 통관 실패 사례

- 호주 농림수산부는 '수입식품관리법(Imported Food Control Act) 1992'에 따라 식별된 수입 부적합 식품을 게시하고 있음. 위험 식품은 100%, 그 외의 식품은

5%를 무작위로 선별하여 검사함. 감시 식품이 검사에서 부적합하다면 통관 보류 명령(holding order)을 적용하며, 해외 생산자가 규정을 준수할 때까지 보류 명령을 유지함

검출일	제품	회사명	수입금지 사유	검출 결과	관련규정	검사유형
2023년 12월 1일	말린 다시마	Badaone Co Ltd	허용치를 초과하는 요오드 검출	51.0 mg/kg, 4140 mg/kg	FSC 1.4.1	위험식품

IV

FTA 이행이슈 관련

(해당없음)